

10712

송창환

● 5월 12일 나의 하루는...

우리복사의 일기

자-107-16

2015. 5/12 화요일

나는 모든 아버지가 일을나가지 않아서 영화를 보기로 하였다.
나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바로갔다 그래서 영화를 예매하는데
어벤져스를 예매하는데. 7시 15분까지 예매를 하였다.
내가 아버지는 짜장면을 먹고 영화를 보러갔다. 그런데 영화가
끝난 시간은 9시 40분정도 됐다. 영화는 노원롯데시네마에서
보았는데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하여
가서 아버지가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에 몰래 사주겠다고 하셔서 기분이 좋았다.
아버지와 이런일을 같이하는것은 심각하게 드문일이다. 아버지와.
짜장면은 자주먹지만 중학교이후에 영화를 보는것은 두번째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휴대폰을 ^{포함} 사주겠다고 하신건 이번이 처음
이었다. 그래서 화요일날 기분이 너무 좋았다. 다음에도
아버지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싶다. 아버지와 함께
여서 너무좋았다. 아버지가 평년에는 무뎡뎡한데
화요일날은 너무 다정해서 더욱 좋았다.